

## OD12            누정 및 사찰공간의 차경에 관한 연구

허 준\* · 노재현<sup>1</sup> · 장혜화<sup>1</sup>

우석대학교 토목조경학부, <sup>1</sup>우석대학교 대학원

### 1. 서    론

#### 1.1. 연구배경 및 목적

전통정원 중에서 정자를 중심으로 한 공간은 입지선정의 기준 및 조망의 대상과 조망 설정을 위한 향의 선택 등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借景을 통한 물리적 경계의 확장을 통해 자연주의적 조망경관 획득의 기회 폭을 넓히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.

국내의 전통공간·경관기법에 관련된 연구 등을 볼 때 借景의 중요성은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의 적용가능성과 전개방법 등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借景을 연구의 주제 또는 소재로 삼아 이에 따른 차경구조 및 특성을 실증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. 특히 전통조경의 경관구조를 실체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借景의 구조 및 특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자 한 연구는 전무하다.

본 연구는 누정 및 사찰에 있어 차경구조의 특성과 그 차이점을 밝히고자 전라북도 내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역사성과 전통성이 비교적 잘 보존된 누정과 사찰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전통적 차경구조를 비교·분석함으로써 전통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경문화의 현대적 수용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관처리기법의 이해와 탐구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다.

### 2. 연구방법

전라북도 소재 누정 30개소, 사찰 30개소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. 이들 유형 건축물 내부에서 또는 외부공간 특히 전정에서 조망되는 경관구조의 특성을 밝히고 또 이들 2개 양식의 차경구조 및 그 처리수법의 상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.

조사내용으로는 주시점장의 좌향, 시거리와 조망수직각, 수평각 파악을 통한 차경구조를 조사하였고 주차경요소(주차경), 부차경요소(부차경) 및 차경매체의 조사를 통해 차경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서적 및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하였다. 취합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빈도분석 위주의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.

### 3. 결과 및 고찰

#### 3.1. 차경구조 분석

##### 3.1.1. 조망각도

計成이 논한 바와 같이 시선의 시각방향에 따른 仰借와 俯借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누정은 俯借를 사찰은 仰借를 통해 경관조망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 보다 확실히 밝혀진 것으로 생각된다.

##### 3.1.2. 向과 차경구조와의 관계 분석

정자에서 남향을 좌향으로 하는 곳이 12개소(40.0%)인 반면 사찰에서는 17개소(56.7%)로서 사찰은 살림집의 경우(14)와 같이 남향을 고려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자는 사찰에 비해 남향을 고려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수평각이 0°인 곳이 15개소(50.0%)로써 借景요소를 고려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찰이나 살림집과는 달리 借景요소를 더 비중있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.

#### 3.2. 借景 내용분석

##### 3.2.1. 주차경요소 분석

전체적으로 볼 때 누정의 주차경요소는 상대적으로 다양함을 엿볼 수 있는데 비해 사찰에서의 주차경요소는 상당히 단순함을 발견할 수 있다. 이와 같은 결과는 정자의 입지 및 좌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궁극적으로는 차경대상을 일차적인 고려사항으로 한 결과이며 특히 江岸이나 평지에서 계류 및 주변 산림경관을 聚景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배려되었음을 보여준다.

사찰의 경우 불교도입 초기에는 도심이나 평지부에 그 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통일신라시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그 입지를 산으로 옮기게 된 것과 관련지어 볼 때 차경주대상이 주로 산과 산봉으로 나타난 것이다. 누정의 경우는 주차경대상이 산·산봉, 강·계류 등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그외에 인공지원, 자연경물, 저수지 등도 몇 개소씩 나타나는데 비해 사찰은 산·산봉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.

##### 3.2.2. 부차경요소 분석

누정의 경우 산·산봉이 24개소(80.0%), 강·계류가 3개소(10.0%), 들·뜰 2개소(6.7%), 그리고 특별한 부차경요소를 지적할 수 없는 경우가 1개소(3.3%)로 나타났다. 이에 비해 사찰은 산·산봉이 22개소(73.4%), 부차경요소를 지적할 수 없는 곳이 6개소(20.0%) 그리고 들·뜰과 자연경물이 각각 1개소(3.3%)로 나타났다.

이는 누정의 주차경요소 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강·계류와 더불어 부차경요소로 산·산봉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사찰은 주차경요소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차경요소 분석에서도 산·산봉이 가장 많이 나타남을 볼 때 이는 앞서 언급한 같이 사찰이 주로 산지에 입지하는 입지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. 즉 누정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江溪沿邊形(江岸形)과 山頂形(丘上 또는 山腹形), 사찰은 山地形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임을 보면 알 수 있다.

#### 4. 결 론

借景의 구조분석 결과, 사찰공간의 차경구조가 누정과 비교하여 거리가 비교적 원경의 경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적 영향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, 누정의 경우에는 시각적 영향권은 물론 경관지배적 영향권 그리고 즉물적 영향권 등 다양한 조망경관에 대한 가시거리를 보이고 있다.

차경대상에 대한 조망각도는 시선의 시각방향에 따른 仰借와 俯借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누정은 俯借를 사찰은 仰借를 통해 차경을 꺾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. 그러나 사찰의 경우에는 누정과 달리 비교적 소극적인 조망각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借景 내용에 있어서 누정의 주차경요소는 다양함을 엿볼 수 있는데 비해 사찰에서의 주차경요소는 산악과 산봉 등 극히 단순함을 발견할 수 있다. 부차경 분석에서는 누정은 주차경 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강·계류와 더불어 부차경에서는 산·산봉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사찰은 주차경분석과 마찬가지로 부차경 분석에서도 산·산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.

#### 참 고 문 헌

- 1) 이유직, 1997, 園治에 나타난 計成의 원림조영이론 연구, 한국조경학회지 25(2), 117-134
- 2) 정동오, 1986, 전통적인 정자원림의 입지특성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, 한국정원학회지 2(5), 25-38
- 3) 안계복, 1991, 한국의 누정양식상 제특성 및 계획이론에 관한 연구-특히 경관처리기법을 중심으로-, 한국조경학회지 19(2), 1-11
- 4) 이유직, 황기원, 1995, 計成의 『園治』에 관한 기초적 연구, 한국정원학회지 23(2), 223-241
- 5) 이유직, 조정승, 1996, 중국정원의 미학 -조영과 감상의 미적 경계를 중심으로-, 한국조경학회지 24(3), 79-95
- 6) 進士五十八, 1986, 「借景」에 관한 研究, 造園雜誌 50(2), 77-88
- 7) 條原修 外, 1982, 『新體係土木工學 59 土木工學』, 枝報堂出版, p. 28, p. 91
- 8) 강병기, 최중현, 임동일, 1996, 전통공간사상에 관한 연구(2), 대한국토·도시계획학회지, 31(1), 9-25